



강 북 구 의 회
Gyeo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9년 1월 21일
(월요일)

강북신문 5면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구본승 의원

“강북구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발행 제안”

구본승 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은 18일 열린 제22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소득증대를 위해 강북구 지역내 소비와 거래를 활성화하는 ‘강북구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발행을 제안했다.

구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가진 한국의식업중앙회 강북구지회와의 간담회시 외식업 종사자의 고충을 듣고 어려움 해쳐나가기 위한 방안을 제안받고 고민하던 중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강북구 지역내 소비와 거래를 활성화하는 추가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그리고 춘천 소양강 위 스카이워크에서 2천원 입장료를 내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2천원 상품권으로 되돌려 받은 ‘춘천사랑상품권’과 100만명 이상을 유지한 화천군 산천어축제의 화천사랑상품권, 농특산물교환권 등을 소개한 뒤 “위와 같은 실제 사례와 연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우리 강북구에서도 ‘강북구사랑상품권’ 등의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지역내 소비와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볼만 하다는 결론이었다”고 밝혔다.



다.

구 의원은 “고향사랑상품권은 지역내 소비 증가 및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를 위해 지방자치 정부가 발행하여 해당

행정구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라며 “이 고향사랑상품권을 강북구에 어떻게 적용해볼 수 있을지 고민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관광사업과 연계하여 이용요금을 받고 상품권으로 돌려주면 지역내 소비로 연계되거나 가족캠핑장 이용요금 중 일부액을 상품권으로 돌려주면 캠핑장을 벗어나 지역내 소비가 가능할 것이라는 고민과 장애인명절위문품 지원 2천만원, 책나눔사랑방운영 상품권비 247만원, 반장 명절보상품 상품권비 1억5천750만원, 공무원복지포인트 등과의 연계 등을 밝힌 뒤 “본 의원의 ‘강북구사랑상품권 발행’ 제안에 대해 올해 처음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강북구 구정연구단의 연구주제로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동북일보 4면

강북구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발행 제안

구 본 승 의원
(무소속/미아동, 송중동, 번3동)

구본승 의원은 1월 18일 열린 강북구의회 제2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소득증대를 위해 강북구 지역내 소비와 거래를 활성화하는 ‘강북구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발행을 검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12월 3일, 강북구의회는 한국의식업중앙회 강북구지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외식업 종사자의 고충을 듣고 어려움 해쳐나가기 위한 방안을 제안 받았으며, 본 의원에 간담회에 참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강북구 지역 내 소비와 거래를 활성화하는 추가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 구본승 의원.

이에 100만 명 이상을 유지한 화천군 산천어축제의 화천사랑상품권, 농특산물교환권 등 실제 사례와 연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우리 강북구에서도 ‘강북구사랑상품권’ 등의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지역내 소비와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볼만 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고향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증가 및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방자치정부가 발행하여 해당 행정구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가맹점에는 백화점, 대형유통업체 등 일부는 제외되고 그 외 지역 내 다양한 가맹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 19일 기준, 전국 광역 2곳, 기초62곳 총 64곳에서 발행하고 있고 지폐형뿐 아니라 모바일상품권 형태도 발행되고 있으며 유형은 양구군과 같은 지역화폐형, 화천군과 같은 관광형과 지역화폐형 결합, 춘천시와 같은 관광형이 있다고 밝히며, <강북구사랑상품권 발행> 제안에 대해 올해 처음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강북구 구정연구단의 연구주제로 제안드리며 이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구했다. <최동수 기자 cds0012000@hanmail.net>

구본승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화폐' 검토 제안



강북구에서도 지역화폐 발행의 길이 열리게 될까? 강북구의회 구본승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소득증대를 위해 강북구청에 「강북구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발행을 제안했다.

구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강북구 지역 내 소비와 거래를 활성화하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구 의원은 타 자치단체의 지역 화폐의 성공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강북구

에서도 강북구사랑상품권 등의 지역화폐를 발행해 지역 내 소비와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볼만 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에 따르면 2017년 12월 기준 전국 광역 2곳, 기초62곳 총 64곳에서 지역화폐가 발행되고 있다.

구 의원은 올해 처음으로 운영되는 강북구 구정연구단의 연구 주제로 강북구사랑상품권 발행을 제안하며 구청 측의 의견을 구했다.

◀ 구본승 강북구의원

강북구의회 구본승 의원 5분 자유발언

‘강북구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발행 제안



지난 18일 제22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구본승 의원(미아동, 송충동, 번3동)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소득증대를 위해 강북구

지역내 소비와 거래를 활성화하는 강북구 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발행을 검토,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했다.

구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강북구의회는 한국외식업중앙회 강북구지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외식업 종사자의 고충을 듣고 어려움 해쳐나가기 위한 방안을 제안 받았다”고 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강북구 지역내 소비와 거래를 활성화하는 추가적 대책이 필요함’에 다다랐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2년전 춘천에 있는 소양강 위스카이워크에 갔을 때, 2천원 입장료를 내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2천원 상품권으로 되돌려 받은 것이 떠올랐다”며 춘천 사랑상품권, 100만명 이상을 유치한 화천군 산천어축제의 화천사랑상품권, 농특산물교환권, 고향사랑상품권 연구보고서와 지역화폐 연구서 등을 영상으로 제시했다.

구 의원은 “실제 사례와 연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우리 강북구에서도 ‘강북구 사랑상품권’ 등의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지

역내 소비와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볼만 하다는 결론이었다”고 말하고 “고향사랑상품권은 지역내 소비증가 및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방자치정부가 발행하여 해당 행정구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가맹점에는 백화점, 대형유통업체 등 일부는 제외되고 그 외 지역내 다양한 가맹점을 운영한다. 2017년 12월 19일 기준, 전국 광역 2곳, 기초62곳 총 64곳에서 발행하고 있고 지폐형 뿐만 아니라 모바일상품권 형태도 발행되고 있으며 유형은 양구군과 같은 지역화폐형, 화천군과 같은 관광형과 지역화폐형 결합, 춘천시와 같은 관광형”이라고 설명했다.

구본승 의원은 고향사랑상품권을 ▲ 추진 중인 관광사업과 연계 ▲ 가족캠핑장 이용요금 중 일부액을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방법 ▲ 공공지출과 연계(생활보장과-농협상품권지급중인 장애인명절위문품 지원 2천만원, 기획예산과- 책나눔사랑방 운영 상품권비 247만원, 자치행정과-반장명절보상품 상품권비 1억5천7백5십만원, 행정지원과-공무원복지포인트 등) ▲ 생활속에서 소비하는 지역화폐형으로는 어떻게 추진할 수 있을지? 등의 방법을 제시하고 올해 처음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강북구 구정연구단의 연구주제로 ‘강북구 사랑상품권 발행’을 제안했다.

강북구의회 구본승 의원 ‘5분 자유발언’

“강북구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발행해야”



지난 18일 강북구의회 제22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구본승 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소득증대를 위해 강북구 지역내 소비와 거래를 활성화하는 ‘강북구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발행을 제안

했다.

먼저 구본승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가진 한국외식업중앙회 강북구지회와의 간담회시 외식업 종사자의 고충을 듣고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제안받고 고민하던 중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강북구 지역 내 소비와 거래를 활성화하는 추가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충청 소양강 위 스카이워크에서 2천 원 입장료를 내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2천 원 상품권으로 되돌려 받은 ‘충청사랑상품권’과 100만 명 이상을 유치한 화천군 산천어축제의 화천사랑상품권, 농특산물교원권 등을 소개한 뒤 “위와 같은 실제 사례와 연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우리 강북구에서도 ‘강북구사랑상품권’ 등의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지역 내 소비와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다는 결론이었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고향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증가 및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방자치정부가 발행하여 해당 행정구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라며 “이 고향사랑상품권을 강북구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고민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구본승 의원은 관광사업과 연계하여 이용요금을 받고 상품권으로 돌려 주변 지역 내 소비로 연계되거나 가족캠핑장 이용요금 중 일부액을 상품권으로 돌려 주변 캠핑장을 벗어나 지역 내 소비가 가능할 것이라는 고민과 장애인명절위문품 지원 2천만 원, 책나눔사랑방운영 상품권비 247만 원, 반장 명절보상품 상품권비 1억 5천 750만 원, 공무원복지포인트 등과의 연계 등을 밝힌 뒤 “본 의원의 ‘강북구사랑상품권 발행’ 제안에 대해 올해 처음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강북구 구정연구단의 연구주제로 제안드린다”고 강조

유영일 기자